

선종(禪宗)을 통한 사찰 소나무림의 의미 고찰

김규원*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I. 서론

선종(禪宗)은 달마(達磨)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었으며, 혜가(慧可), 승찬(僧璨), 도신(道信), 홍인(弘忍)으로 내려오다가 당대(唐代)에 이르러 6조 혜능(慧能)에 의해 확립되었다(불교신문사, 1989). 우리나라는 신라 선덕여왕때 당나라에 건너가서 4조 도신의 법을 이은 법랑(法朗)에 의해 전래되었고, 본격적으로 남종선(南宗禪)은 도의국사(道義國師)에 의해 전래되었다(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11). 그 후 혜소, 혜철, 무염, 원효 등의 유명한 선사를 배출하였으며, 고려시대의 의천, 지눌과 조선시대의 휴정으로 이어졌다(권중서, 2010). 선(禪)은 자연을 부처와 같은 지고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무정의 존재에도 생명을 부여하고,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인식하였다. 자연적 상태와 질서는 선이 추구하는 도(道)의 경지로 보았다(서재영, 2007).

사찰의 입지는 통일신라후기 선종과 지방호족, 영지신앙으로서의 산악승배사상과 풍수지리사상에 의해 산 속에 입지하였다(IFLA 한국조직위원회, 1992). 우리나라 선원의 원형은 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나무 밑 반석위에 앉아 선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민경현, 1998), 그 주변 사찰림의 기본은 소나무라고 할 수 있다(임주훈, 1999). 소나무는 한국, 중국 동북 지방의 압록강 연안, 산둥반도, 일본의 시코쿠, 규슈, 혼슈, 러시아 연해주의 동해안에서도 자란다(전영우, 2004). 1940~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6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74년에는 49%(323만ha)로, 2007년에는 23%(150만ha)로 감소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2009). 하지만 사찰 주변의 소나무림은 불교사상의 실천과 조선시대에 금산 및 봉산 등의 국가정책으로 보호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찰림의 초기연구자인 이상식과 권뇌택(1975)은 종교림으로서 사찰의 존엄성을 더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풍치림으로서 관리하기 위해 미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여 사찰림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최근 들어 전영우(2009)는 사찰림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기 위해 대상으로 선정한 12곳의 사찰림에서 소나무 중심의 입상구조를 발견하였으나, 사찰의 소나무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아직까지 정의되지 못한 사찰 소나무림의 의미를 선종과 관련된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종에서의 소나무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선종의 역대 조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조사를 하였다. 불교 선종사서(史書)중 하나로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당나라말 오대(五代)까지의 선사(禪師) 253명의 행적과 법어·게송·선문답을 담고 있는 조당집(祖堂集)¹⁾과 과거칠불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전등록(傳燈錄)²⁾, 송(宋)나라 혜홍(慧洪)이 지었으며, 당·송대(唐宋代)의 선승(禪僧) 81명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책인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중국 불교 임제종(臨濟宗)의 개조인 의현(義玄)의 법어(法語)를 수록한 책임제의현선사의 어록인 임제록(臨濟錄), 당(唐)의 영가현각(永嘉玄覺)이 지었으며, 선(禪)의 핵심을 운문(韻文)으로 읊은 증도가(證道歌)³⁾, 서산대사의 시문집인 청허당집(淸虛堂集) 등을 고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선(禪) 수행 장소로서의 산(山), 숲(林), 나무(木)

석가가 출가한 후 득도를 하고자 고행을 하는 중에 산신에게 도를 이룰 곳으로 나무아래 있는 평평한 돌을 장소로 안내받는다. 득도 장소로서의 나무뿐만 아니라, 산신이 득도의 장소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자가 정각산(正覺山)에 이르자 산이 진동하며 산신이 나타나 “여기는 도를 이룰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태자가 “그러면 어디가 도를 이룰 만한 곳인가?”라고 하자 산신이 “여기서 마갈제나리의 남쪽으로 16리를 가면 금강좌⁴⁾가 있는데 현겁의 천 부처님께서 모두가 그 자리에 올라 등정각을 이루셨으니 그리로 가소서”(『조당집』 제1권, 제7 석가모니불)

달마대사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선종을 창시하여 선종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승산의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좌선으로 도를 얻고 이 선법을 제자 혜가에게 전수하였다. 조당집에서 달마대사는 스승의 뒤를 잇는 성인의 존재를 묻고 스승은 달마대사가 숲 아래에서 도를 얻는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를 얻는 장소는 숲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 스승에게 여쭙었다.

“그 뒤에 성인이 나오시겠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숲 밑에서 어떤 사람이 도를 얻고 보리에 제함하리라. 나의 참언을 들으라.”(『조당집』 제2권, 제28조 보리달마회상)

오조홍인(五祖弘忍)대사는 “수도는 무슨 까닭에 도시나 마을이 아닌 이 같이 깊은 산속에서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산은 속세의 사람들을 피하고, 도를 얻기 위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언급하고 있다.

큰집의 재목은 본래가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다. 인간 쪽에는 없다. 멀리 사람을 떠남으로써 칼이나 도끼에 상하거나 찍히지 않고 날날이 자리서 큰 물건으로 성장하여 뒤에 동량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정신을 깊은 골짜기에 깃들게 하며 멀리 객진을 피하여 성품을 산 중에서 기르며 길이 속사를 피함을 알라. 눈 앞에 사물이 없으면 마음을 스스로 안연하고 도수의 꽃이 피고 선림의 열매가 나온다.(『전법보기⁵⁾』)

회양(懷讓)선사의 6세인, 진주(鎭州) 보수(寶壽) 소(沼)화상(化相)의 법을 이은 여주 서원 사명선사는 전등록에서 수행장소인 가람은 곧 숲임을 말하고 있다.

가시덤불과 숲이니라.(『전등록』 제12권, 여주서원사명선사)

원효대사는 출가수행자를 위해 지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⁶⁾에서 애육에 얽매이지 않고 도를 닦을 수 있는 곳을 산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산이 아니더라도 산속에서 수도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인들 산에 들어가서 도 닦을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그리하지 못하는 것은 애육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제 힘껏 노력하여 착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발심수행장』)

고려 충렬왕 때의 승려인 각우선사가 남긴 자경문(自警文)⁷⁾은 발심수행장과 함께 불가에서 수도를 처음 시작하는 스님들을 위해 만든 책으로 산중 깊은 계곡에서 도를 닦아야 하고 또한 소나무와 같은 뜻이 높은 사람과 어울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

플뿌리와 나무 열매 음식을 삼고 솔방울과 피란 풀잎 몸을 가리며 뉘노는 학, 푸른 하늘, 구름 벗 삼아 높은 산중 깊은 계곡 도를

닦으리.

높이 솟은 소나무를 휘감은 칠푼클은 하늘높이 쭉쭉 올라가지만 낮은 떠플 속에 엉킨 나무는 그 높이가 석 자를 넘지 못하니 어질지 못한 소인배는 늘 멀리해야 할 것이요, 뜻이 높은 사람들과는 자주 어울려야 하느니라.

출가한 뜻 저버리지 않고자 하면 모름지기 산속에서 부처님의 오묘한 뜻을 끝까지 알아가되 솔바람과 밝은 달빛 벗을 삼아서 번뇌 없는 조사선과 함께 하리라.(『자경문』)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 영가(永嘉) 현각(玄覺)의 증도가에서는 단일수종의 울창하고 깊은 숲, 고요하고 한적한 숲에서 머무는 수행환경과 수행자의 모습을 말하였다.

전단향 나무 숲에는 잡나무가 없으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도다.

경계 고요하고 숲 한적하여 홀로 노니니

길짐승과 나는 새가 모두 멀리 달아나도다.(『증도가』)

2. 선종(禪宗) 사찰 소나무림의 의미

1) 사찰환경의 완성과 불심 전파의 매개체

원규선사(元珪禪師)는 홍인대사(弘忍大師)의 제1세인 승악(嵩嶽) 혜안국사(慧安國師)의 법을 이은 스님이다. 사찰에 찾아온 사람이 승악산(嵩嶽山)의 산신임을 알아본 선사가 대화를 통해 산신에게 계를 주고 불교에 귀의하게 하였다. 산신이 덕화에 보답하고자 불법을 옹호하고 싶어 하여 선사는 동암사 둘레에 소나무를 옮겨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동암사(東岩寺) 둘레에는 나무가 없고 북수(北岫)에는 있지만 뒤에 병풍처럼 둘러져있지는 않다. 그래서 북수의 그 나무를 옮겨다 동암에 심어 주겠는가?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 북수의 솔밭이 모두 동암 곁으로 옮겨졌고, 첩첩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전등록』 제4권, 승악원규선사)

이처럼 사찰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져있는 소나무림을 사찰환경의 완성으로 보고 있으며, 산신은 그 소나무림을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효대사는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산과 소나무가 있는 숲은 수행하고 거주하며, 먹을 곳을 해결해야할 장소로 언급하고 있다.

높은 산 큰 바위는 슬기로운 사람이 머물 곳이요,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눈 푸른 수행자가 살 곳이다. 배가 고프면 나무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위로할 것이요, 목이 마르면 냇가에 흐르는 물로 갈증을 멈추리라.(『발심수행장』)

조당집 17권의 통효대사편에서 줄지어 심은 소나무림을 도를

행하는 장소로, 평평한 들은 좌선(坐禪)하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다.

대중 5년 정월에 이르러 백달산에서 연좌하고 있노라니 명주의 도독인 김공이 굴산사에 주석할 것을 청하였다. 한번 숲속에 앉아 들어가 산 지 40여년 동안 줄지은 소나무로 도를 행하는 행랑을 삼고, 평평한 돌로써 좌선하는 자리를 삼았다.(『조당집』 제17권, 명주 굴산 고 통효대사)

임제의현(臨濟義玄)은 황벽희운(黃檗希運)에게 사사(師事)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아 하북성(河北省) 진주(鎮州) 임제원(臨濟院)에서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는데, 임제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임제스님이 소나무를 심고 있을 때 황벽스님이 물었다.
“깊은 산속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 무엇하려는가?”
임제스님은 “첫째는 선원의 주변 환경을 잘 만들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표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땅이로 땅을 세 번 찍었다.(『임제록』)

임제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소나무를 심었으며, 이러한 행동은 사찰의 경관과 수행장소로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훗날의 사람들이 소나무를 보며 우러러보게 하는, 수행의 표방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동산효총선사는 만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며 대승불교의 근본을 이루는 경전인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을 외었는데 이 금강반야경은 선종에서 중국선종의 제5조인 홍인(弘忍) 이래 특히 중요시되었고, 제6조 혜능(慧能)은 이 경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가장 중요시 하였다. 혜능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금강반야경을 외우고 임제가 보여줬던 소나무 식재 의도대로 사람들이 그 고개를 금강이라 부르며, 금강반야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수 동령에다 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금강반야경을 외우니 산중의 사람들이 그 고개를 금강이라고 불렀다.(『선림승보전』 제11권, 동산효총선사)

청허휴정은 소나무를 심으며, 수목초화를 좋아해서가 아닌 색즉시공(色卽是空)을 알리기 위해 심는다고 하였다. 색즉시공은 반야심경(般若心經)에 나오는 말로, 현실의 물질적 존재는 모두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불변하는 고유의 존재성이 없음을 이르는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의 핵심이다. 이처럼 소나무를 보며 팔만대장경의 8만 4천 범문을 260자 안에 요약한 반야심경의 핵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봄에는 들 앞에 극화를 심었고
음년에는 난간 밖에 또 술을 심는다.

산승이 화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색은 곧 공임을 알리기 위해서네.(『청허당집』 제1권, 술과 극화를 심다)

2) 득도를 이룬 선승의 상징

소나무는 새싹부터 절개를 보이고 자라며,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며 푸르고 울창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는 수행의 고통을 참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도를 이룬 선승의 모습을 나타낸다. 마조 도일선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커다란 겨울소나무와 같으며, 사자존자는 인간과 하늘이 우러러보는 눈 속의 푸르른 소나무로 말하고 있다.

송죽(松竹)이 추위를 이기는 뜻만을 지켜보노니
사시에 변함없이 맑은 바람 흘러 나온다.
봄과 여름은 잠시 동안 뭇나무에 가리우나
가을과 겨울에는 변함없이 울창한 숲 이룬다.(『조당집』 제4권, 선두회천 계통)

마조 도일선사는 수행이 온전하여 금석과 같다. 근본을 깨달아 초연하고 기지를 찾아 애쓰졌다. 오랫동안 선정하신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내던져 버리고 남창에서 크게 교화를 퍼니 1천척짜리 겨울소나무 같구나.(『조당집』 제14권, 강서 마조화상)

선사는 신령한 싹이 나듯 도기를 혼연히 이루었으니, 계수나무의 순은 어려서부터 향기를 뿜고, 송백(松柏)은 새싹때부터 절개를 보인다.(『조당집』 제17권, 정원화상)

사자존자는 인간과 하늘이 우러러보니
눈 속의 푸르른 소나무요
그림 사이로 나는 학이라네.(『조당집』 제24권, 사자존자)

오직 소나무를 심어 가꾸었던 재송도자(栽松道者)는 오조홍인의 전생의 이름이다. 청허휴정(淸虛休靜)은 재송도자가 소나무를 심으며 다시 태어나 법을 구하고자하는 모습을 칭찬하며 시를 지었다.

두 몸이 한 꿈을 깨었으니
소나무에 달이 싸늘하게 서로 비추네.
백발이 도리어 흥안이 되니
천년학이 스스로 늙네.(『청허당집』 제1권, 재송도자를 칭찬하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선종을 개창하고 맥을 이었던 선사들의 언행이 담긴 선종사서를 살펴봄으로써 사찰 주변에 볼 수 있는 소나무림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통일신라 후기 선종의 도입으로 사찰의 입지는 산 속에 위치하였는데, 수행의 장소와 도를 얻는 장소는 나무와 숲임을 말하고 있으며, 산신이 득도의 장소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도 장소로서의 산은 속세의 사람들을 피하고, 도를 얻기 위해 정신을 집중할 수 있으며, 애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곳이고 승려는 산이 아니더라도 산속에서 수도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소나무는 뜻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였으며, 수행자는 소나무와 같은 사람과 어울려야 함을 말하고 있었다. 정허휴정은 소나무를 보며 팔만대장경의 8만 4천 범문을 260자 안에 요약한 반야심경의 핵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2. 사찰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소나무림은 사찰 수행환경의 완성으로 보았으며, 산신은 소나무림을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산과 소나무림은 수행하고 거주하며, 먹을 곳을 해결해야할 장소로 언급하고 있었고, 줄지어 심은 소나무림을 도를 행하는 장소이고, 평평한 돌은 좌선하는 장소로 언급하고 있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소나무를 심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수행은 사찰의 경관조성과 수행장소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훗날의 사람들이 소나무를 보며 불심을 얻는 수행의 표방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소나무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을 알리기 위해 심는다고 하였다. 이는 소나무를 보며 팔만대장경의 8만 4천 범문을 260자 안에 요약한 반야심경의 핵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소나무는 득도를 이룬 선승의 상징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소나무는 새싹부터 절개를 보이고 자라며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며 푸르고 울창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모습은 변함없이 수행의 고통을 참고 도를 이룬 선승의 모습을 나타낸다.

주 1. 선종의 역사를 기록한 고서로서 저자는 정. 균이며 952년에 지어졌다.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과거칠불로부터 당나라말 오대(五代)까지의 선사(禪師) 253명의 행적과 법어·개송·선문답을 담고 있다. 모두 20권으로 952년 남당(南唐)의 천주(泉州)에서 편찬되었으며,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고려대장경》 속에 단 1본만 전해진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02618)

주 2. 역대 부처와 조사들의 어록과 행적을 모은 책으로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주 3.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 영가(永嘉) 현각(玄覺:665~713)의 시편으로 남종선의 시조인 6조 혜능(慧能)에게서 선요(禪要)를 듣고 하룻밤에 증오(證悟)를 얻은 저자가 그 대오의 심경에서 증도의 요지를 247구 814자의 고시체로 읊은 시이다. 찬술연대는 705년경으로 유려한 문체일 뿐 아니라 선의 진수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널리 독송·해설되어 왔다. (<http://www.doopedia.co.kr>)

주 4. 중인도(中印度) 마갈타국(摩竭陀國) 불타가야(佛陀伽耶)의 보리수(菩提樹) 아래에 있는데, 옛날에 석가모니(釋迦牟尼)가 성도(成道)할 때에 앉았던 관관한 큰 돌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5&docId=84231&mobile=&categoryId=2644>)

주 5. 초기 선종사를 담고 있는 불교서적으로 1900년대에 동황석굴에서 필사본으로 발견되었다. 선종이 남북으로 나뉘기 이전, 북종선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을 통해 조사(祖師)의 계통을 알 수 있는데, 송산 소림사 법여(法如)를 오조 홍인(弘忍) 문하에 두었고, 법여에서 신수(神秀)로 법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69708)

주 6. 신라의 원효(元曉)가 출가 수행자를 위하여 지은 발심(發心)에 관한 글로 1권이다. 불교전문강원의 사미과(沙彌科) 교과목 중 하나이며, 처음 승려가 되기 위하여 출가한 자들은 반드시 읽고 닦아야 할 입문서이기도 하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주 7. 저술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심》·《발심》과 함께 합본으로 된 신흥사판(1579)·언해본(순천 송광사 소장)·해인사판(1883, 고종 20) 및 현대의 번역본 수종이 전한다. 이 책의 저자인 각우는 고려 충렬왕 때의 승려로 생몰년은 미상이며, 속명은 우(宇), 호는 몽암노인(夢巖老人)·야운(野雲)이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참고문헌

- 권중서(2010) 불교미술의 해석, 서울: 불광출판사, pp. 264-266.
- 김월운 역(2008) 조당집 1, 한정. 균, 서울: 동국역경원.
- 김월운 역(2008) 조당집 2, 한정. 균, 서울: 동국역경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11) 한국불교사, 서울: 조계종출판사.
- 문재현 역(1995) 전등록 1, 도원, 서울: 바로보인.
- 문재현 역(1995) 전등록 2, 도원, 서울: 바로보인.
- 민경현(1998) 숲과 돌과 물의 문화, 서울: 예경 p. 131.
- 백련선서간행회(1988) 선림보전, 서울: 장경각.
- 불교신문사(1989) 선사신문, 서울: 우리출판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 2009.6.30.
- 서재영(2007) 선의 생태철학,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405.
- 원순 역(2010) 초발심자경문, 자경문, 서울: 법공양.
- 이상식, 권낙택(1975) 한국 사찰림의 풍치조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자연과학편 논문집 14: 331-347.
- 임주훈(1999) 사찰의 숲과 나무(신원섭편, “숲과종교”), 서울: 수문출판사, p. 121.
- 전영우(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서울: 현암사.
- 전영우(2009) 사찰림의 형성 유래와 기능, 산림과학 21집: 1-15.
- 정성본 역(2003) 임제어록, 임제의현, 서울: 한국선문화연구원.
- IFLA 한국조직위원회편(1992) 한국전통조경, 서울: 도서출판조경 p. 28.
- 불교신문 2171호(2005년 10월 19일), 성본스님의 벽암록 이야기.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72&docId=267771&mobile&categoryId=1364>